

# 보건복지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종합병원협의회 의견수렴

- 필수의료 인력 부족 상황 및 인력확보 방안 등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5일(화) 18시 40분에 「대한종합병원협의회 (이하 ‘종합병원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종합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100개 이상의 병상과 7개 또는 9개 이상의 진료과목, 각 진료과목에 속하는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으로서, 중증·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등 지역·필수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종합병원 협의회는 지난 8월 발족한 이후로 필수의료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주재하였으며, 종합병원 협의회는 정영진 회장(용인강남병원)을 비롯하여 총 7명이 참석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 및 의료인력 확충 방안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간담회 참석자들로부터 필수의료 정책에서 종합병원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먼저 정영진 종합병원협의회장(용인강남병원장)은 “필수의료 문제 해결의 중심은 응급의료 등 인프라를 갖춘 종합병원”이라고 말하며,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을 위해서는 종합병원이 보건의료정책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병근 종합병원협의회 수석부회장(평택박애병원장)은 “종합병원의 의료

인력이 코로나19 이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인건비 폭증으로 인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경쟁하면서 종합병원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며, “종합병원을 건강하게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송 종합병원협의회 고문(서울성심병원장)은 “지역 및 필수의료 유지에 종합병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원활한 종합병원 운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종합병원 관련 수가 개선과 더불어 의사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남영 종합병원협의회 부회장(검단탑병원)은 “종합병원이 지역·필수의료 혁신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자리가 마련된 것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료계 뿐만 아니라 병원계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마련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정부는 종합병원이 지역·필수의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의사인력이 종합병원에 충분히 확보될 수 있게 하는 정책패키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에서 종합병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와 보상체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해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정책 반영을 위하여 12월 6일 울산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지역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붙임> 대한종합병원협의회 간담회 개요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한숙 (044-202-2420)
		담당자	사무관 이성경 (044-202-2414)
			사무관 신현준 (044-202-2412)



**대한종합병원협의회 간담회 개요**

- (일시) '23. 12. 5.(화) 18:40~20:30
- (내용) 보건의료 정책 및 의사인력 양성 등 현안 관련 의견 청취
- (참석) (복지부)제2차관, 보건의료정책과장
  - (종합병원협의회)정영진 회장(용인강남병원장), 김병근 수석부회장(평택박애병원장) 등 7명

성명	주요 경력
정영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現 종합병원협의회 회장</li> <li>▸ 現 용인강남병원장</li> </ul>
김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現 종합병원협의회 수석부회장</li> <li>▸ 現 평택박애병원장 (정형외과 전문의)</li> </ul>
서남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現 종합병원협의회 부회장</li> <li>▸ 現 검단탑병원 이사장 (치과)</li> </ul>
이대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現 종합병원협의회 부회장</li> <li>▸ 現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 이사장 (혈액종양내과)</li> </ul>
이병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現 종합병원협의회 고문</li> <li>▸ 現 전주대자인병원장</li> <li>▸ 제17대 전라북도병원회장</li> </ul>
이 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現 종합병원협의회 고문</li> <li>▸ 現 서울성심병원장 (정형외과 전문의)</li> </ul>
장진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現 종합병원협의회 부회장</li> <li>▸ 現 남양주한양병원장</li> </ul>